



하루에 하나

2026.6.8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559.00원 (+29.30원)

KOSPI

8,160.59 (-478.82, -5.54%)

KOSDAQ

1,002.44 (-47.29, -4.50%)

국고채 10년 금리

4.254 (+0.025%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화수분전략	금리 상승: 2023년 본드 텐트럼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재만]
New K-ETF	금융&지주 고배당, 현대차기아 채권혼합 [박승진]
New K-ETF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TOP3+ [박승진]
Issue Breaker	[검은 월요일 대응 전략]: 공포는 환율에서 왔고, 기회는 실적에서 온다 [김두연, 김록호]
HANA Global Weekly	중국 주식시장의 약점 [김경환]
Econ Snapshot	미국 5월 비농업 고용: 주도 업종 분포 개선. 추세는 지켜볼 필요 [전규연]
주간 강테마	잠시 방어주와 쉬어가기 [강운형]

기업분석

한미약품	L/O 가이드스 달성, 그러나 아직 몇 발 더 남았다 [김선아]
삼성물산	의심할 필요가 없는 PBR 0.7배 저렴한 주가 [김승준]
디앤디파마텍	성공적인 MASH 결과 들고 다음 스텝으로 (NDR 후기) [김선아]
팜텍	IPO 주관사 업데이트: 반도체 주도 성장 [박찬술]

산업분석

게임	SGF 2026 리뷰. 시프트업/NC 신작 정보 공개 [이준호]
----	-------------------------------------

Weekly

은행	은행주 Outperform 현상 이어질 전망 [최정욱]
반도체 및 소부장	LPDDR 과부족이 낳은 오해.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김록호]
철강금속	기후부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하향 안정화 언급 [박성봉]
에너지/화학	1년 간 10배 오른 미국 태양광 모듈업체 [윤재성]
음식료/담배	6월 투자전략 + 5월 수출 Re [심은주]
2차전지	배터리 투자자가 준비해야 하는 3가지 [김현수]
디지털자산	단기 조정 국면, 국내 법안 논의 재개 예상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HANA US Weekly	AI 반도체의 단기 변동성은 기다렸던 매수 기회 [강재규]
Tech&Stock Weekly	AI 가동의 필수 요건으로서 보안 중요도 급부상 [김재임, 김시현]
Hana China Weekly	경쟁적으로 AI 투자 확대 중인 상위 기업들 [백승혜]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LG이노텍, KT&G, 삼성증권, OCI홀딩스, 덕산하이메탈, 에치에프알

2026년 6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화수분전략

금리 상승: 2023년 본드 텐트럼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2023년과 같은 본드 텐트럼 현상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5~6월 2년물 국채금리는 3.9%에서 4.9%까지 급등 이후, 7~10월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3.8%에서 4.9%까지 급등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상승했던 23년 8~10월까지 S&P500지수 -9%(7월까지 +20%), 코스피 -13%(+18%) 하락했다.

지금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 5.0%에 근접할수록 주식시장의 하락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26년 3분기~27년 2분기까지 미국 명목 GDP 성장률(YoY)전망치는 4.5%~5.1%로 평균 4.8%다. 성장률보다 비용(금리)이 크면, 조정 시그널이다.

2023년 5~7월까지 S&P500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본드 텐트럼이 발생했던 8~10월까지 주가 급락세가 나타났다. 코스피는 당시 주도주였던 철강, 조선이 급락했다. 2026년 지금도 당시와 동일하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중심(S&P500 반도체, 코스피 하드웨어)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 -12% 하락, 2025년 11월 AI 과열 논란과 미국 금리 상승 우려가 있었던 2025년 11월 -16% 하락했다. 대표 주도주의 가격 조정은 75%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11~12월 미국 본드 텐트럼 현상이 진정된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10월 CPI(YoY)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후 3% 초반대로 낮아졌고,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미국 2026년 5월 CPI YoY가 발표(현재 예상치는 4.2%), 18일 FOMC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발표될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FOMC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이후 향후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컨센서스가 나타나야 지금의 금리 상승은 진정될 수 있다. 확인의 시간이 필요하다.

2023년 11~12월 본드 텐트럼 현상 진정 이후 S&P500 내 변화는 기존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가 28%나 상승하며 빠른 주가 회복세를 보였고, 본드 텐트럼 당시 주가 낙폭이 가장 적었던 S/W도 14% 상승하며 주도 업종 역할을 했다. 반도체와 S/W는 고금리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매출 보다는 EPS, EPS 보다는 FCF(잉여 현금흐름)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업종들이었다.

반면 기존 주도주였던 자동차 주가는 본드 텐트럼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2024년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EPS와 FCF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과 고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매출 보다 순이익 증가율(수익성), 순이익 보다는 현금흐름 증가율(현금창출 능력)이 높은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6~27년 매출<EPS<FCF 증가율 순으로 형성된 업종은 S&P500 반도체, 자본재, 원자재(27년만 적용 시 S/W 포함)이고, 코스피는 반도체, 전력기기, 하드웨어(27년만 적용 시 방산/지주 포함)다.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RA 손일수 ilsoosoon@hanafn.com

2026년 6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금융&지주 고배당, 현대차기아 채권혼합

신규 상장 ETF(6/9)

- DAISHIN343 금융&지주 고배당, 1Q 현대차기아 채권혼합50

TIGER DAISHIN343 금융&지주 고배당: 국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금융기업 및 지주사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높고, 주당 순자산 비율(PBR)이 낮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총 20개 종목을 선별하여 편입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에 유동성 조건(시가총액 5천억원수, 일 평균 거래대금 5억원수)을 충족시키는 금융주, 지주사 분류 종목들을 편입 대상 유니버스로 한다. 이어 유니버스에서 배당수익률(최근 12개월 배당금)을 기준으로 금융주 상위 30개과 지주사 상위 10위 종목들을 1차적으로 골라낸 후, 이어 각 그룹에서 주당 순자산 비율(PBR)이 낮은 금융주 15개, 지주사 5개 주식들을 최종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4월과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후 10거래일)에 걸쳐 진행되며,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은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최소 1%에서 최대 10%의 기준을 반영한 상하단을 제한한다. 0.24%의 총 보수가 적용된다.

1Q 현대차기아 채권혼합50: 현대차와 기아를 각각 25%씩 편입해 총 50% 비중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머지 50%는 단기 채권으로 구성된 채권 포트폴리오를 조합하는 형태의 채권혼합형 패시브 ETF이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서 피지컬 AI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들과 잔존만기 1~6개월의 국고채 및 통안채 8개 종목으로 구성된 ETF가 되겠다. 채권 포지션은 만기 6개월 이내의 단기 채권으로 편입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종목이다.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DC·IRP)에서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총 보수는 연 0.10%가 적용된다.

도표 1. DAISHIN343 금융&지주 고배당, 1Q 현대차기아 채권혼합50 ETF의 종목 개요

ETF명	DAISHIN343 금융&지주고배당	1Q 현대차기아채권혼합50
상장일	2026년 6월 9일 화요일	2026년 6월 9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KRX-Akros 금융&지주고배당 지수	KEDI 현대차&기아채권혼합50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24%	0.10%
구성종목 수	20종목	10종목
비중결정방식	시가총액 가중방식	- 주식: 종목(2종목)은 종목별로 각 25% - 채권: KAP 단기국고통안채 6M총수익 지수 포트폴리오는 50% 비중
정기변경	연 2회 (매 4, 10월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10거래일 후)	- 주식: 해당사항 없음 - 채권: KAP 단기국고통안채6M총수익지수 방법론에 따라 매월 첫 영업일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2026년 6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TOP3+

신규 상장 ETF(6/9)

- KODEX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TOP3 플러스

KODEX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TOP3 플러스: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비즈니스와 연계된 국내 및 미국 상장 기업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완성차 기업을 넘어 글로벌 로보틱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로, 현대차를 핵심 종목으로 하되 로봇 밸류체인 전반의 관련 기업들을 함께 편입 대상으로 한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제조 인프라와 생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로봇 상용화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지컬 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제조업,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업, 전기장비·가전제품 및 부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운송지원 서비스업, 웹 검색 포털·도서관·기록보관소 및 기타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을 편입 대상 유니버스로 한다.

이어 유니버스 종목들을 대상으로 'Hyundai Motor Robotics'의 키워드를 반영한 유사도 점수를 산출하고, 상위 10개 종목들을 최종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개별 종목 편입 비중은 상기 유사도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들에 대하여 25%의 고정 비중을 할당하고, 나머지 7개 종목들은 점수에 비례하여 25%의 비중을 나누어 배분한다. 상장일(6/9) 기준의 TOP3(각각 25% 비중) 포지션에는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가 자리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벌비스, 현대위아, Nvidia, Alphabet 등의 기업들 역시 포트폴리오 편입 대상 종목군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BostonDynamics와 Figure AI, Unitree Robotics, Appttronik 등의 현대차그룹 로봇 밸류체인의 주요 비상장 기업들이 새로 상장될 경우 최대 25% 비중의 특별 편입을 고려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6월, 12월)에 걸쳐 진행된다. 0.5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 종목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KODEX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TOP3 플러스 ETF의 종목 개요

ETF명	KODEX 현대차로보틱스밸류체인TOP3플러스
상장일	2026년 6월 9일 화요일
기초지수	Akros 현대차로보틱스 밸류체인TOP3플러스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50%
구성종목 수	10종목
비중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XUS 유사도 순위 상위 3개 종목에 각각 25%의 고정 비중을 부여. 단, 해당 종목이 이미 구성 종목이며 비중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25%로 재설정하지 않고 기존 비중을 그대로 유지. 상위 3개 종목에 배분된 비중의 합을 W1이라 함 - 나머지 7개 종목에 대해서는 총합 점수에 비례하여 잔여 비중 (100-W1)%를 배분
정기변경	연 2회 (매 6, 12월)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6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Issue Breaker

[검은 월요일 대응 전략]: 공포는 환율에서 왔고, 기회는 실적에서 온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6월 8일 한국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를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외환 불안, 금리 재가격화, 반도체 차익실현이 동시에 겹친 압축 조정이다. 미국 반도체 급락은 한국 시장에 부담이지만, 메모리 실적의 방향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Nvidia 의 LPDDR 탑재량 축소 가능성은 수요 둔화가 아니라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중동 리스크가 봉합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포에 동참하기보다 환율 안정 여부를 확인하며 주도주를 다시 살 기회로 접근한다.

이번 불안의 출발점은 주식이 아니라 외환시장이다. 달러 인덱스가 100 선을 회복했고, 달러-원 환율은 1,560 원 안팎까지 급등했다. "위기와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온다"는 격언처럼 한국 시장의 공포는 환율에서 시작됐다. 외국인도 주가보다 환율을 먼저 본다. 원화 약세가 멈추지 않으면 수급은 흔들리고, 수급이 흔들리면 좋은 실적도 잠시 뒤로 밀린다.

금리도 부담이다. 미국 5 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인하 기대는 후퇴했다. 고용이 강하면 연준은 서두르지 않는다. 더구나 6 월 FOMC 는 케빈 워시 체제의 첫 시험대다. 시장은 이제 금리인하보다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가격에 넣기 시작했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먼저 흔들린 이유다. 이번 하락은 실적 붕괴가 아니라 할인을 상승의 결과다.

충격은 반도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요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각각 6.4%, 9.9% 하락했고, Micron 도 이틀간 20% 가까이 급락했다. 브로드컴은 양호한 실적에도 AI 매출 전망을 높이지 않았고, Nvidia 의 차세대 AI 플랫폼 Vera Rubin NVL72 관련 메모리 탑재량 축소 우려도 더해졌다. SemiAnalysis 는 Vera Rubin NVL72 의 LPDDR5X 탑재량이 기존 54TB 에서 27TB 로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Nvidia 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를 메모리 수요 둔화 신호로 해석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다.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수요가 커진 것이다. 하나증권은 2026~2027 년 Nvidia 가 LPDDR 최대 구매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5/15, [메기남 등장 참고](#)). Vera Rubin 물량이 본격화되는 2027년에는 Nvidia 의 LPDDR 필요량이 전체 공급능력의 36%에 달할 수 있다. 여기에 Vera CPU 별도 판매까지 반영하면 필요 물량은 공급능력의 절반 이상으로 추산될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다. 따라서 Nvidia 가 LPDDR 탑재량을 줄인다면, 이는 AI 수요 둔화가 아니라 Vera Rubin 출하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공급 제약 대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Grace Blackwell NVL72 랙에는 18TB 의 LPDDR 이 탑재된다. Vera Rubin 이



김두언 국내외 시장 애널리스트
kimdoon@hanafn.com



김록호 반도체 애널리스트
roko.kim@hanafn.com

탑재량을 절반으로 낮춰도 랙당 27TB 다. 여전히 Grace Blackwell 대비 50% 증가한 규모다.

결론은 분명하다. Vera Rubin 의 LPDDR 탑재량 축소 가능성은 LPDDR 수급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급 부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Nvidia 발 LPDDR 수요는 DRAM Blended ASP 상승을 계속 견인할 수 있다.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에도 추가 상향 여지가 남아 있다. 주가는 먼저 흔들렸지만, 이익의 방향은 아직 위를 향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은 있었다. 지난 3 월 Google 이 메모리 압축 알고리즘 Turbo Quant 를 공개했을 때도 메모리와 스토리지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에도 미국이란 갈등이라는 매크로 불안이 겹치며 차익실현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주가 흐름은 달랐다. 이번 Vera Rubin 논란도 본질적으로는 같다. 강한 주가 상승 구간에서 금리, 환율, 수급 불안이 차익실현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AI 투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간 것이다. 한국의 5 월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 분기 실적은 7 월부터 다시 확인될 예정이다. 주가는 먼저 흔들렸지만, 이익의 방향은 아직 위를 향하고 있다. 지금은 주도주의 퇴장이 아니라 주도주의 가격 조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5/19, 코스피 만 포인트 시대 생존전략: 여주사 참고).

중동 리스크도 공포만으로 볼 필요는 없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에도 7 월물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시장이 전쟁의 확산보다 봉합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유가의 상단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는 중요한 완충재다.

남은 변수는 세 가지다. 미국 5 월 CPI(6/10), 스페이스 X 상장(6/12), 일본은행의 금리인상(6/15) 가능성이다.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 공포는 커질 수 있고, 대형 IPO 는 기존 AI 주도주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 엔화와 달러, 원화가 동시에 흔들리면 아시아 증시 전반의 변동성도 커진다.

따라서 대응은 단순해야 한다. 첫째, 개장 직후 투매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둘째, 달러-원 환율이 1,560 원대에서 추가 급등하는지 확인한다. 반도체는 가격보다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낙폭이 큰 종목을 모두 사는 것이 아니라, 셋째, 7 월 실적 가시성이 높은 메모리 대표주와 AI 인프라 병목 기업을 선별한다. 넷째, 코스닥 성장주는 환율 안정 이후 접근한다.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추세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번 조정은 경기 침체의 예고가 아니라 과열을 식히는 과정이다. 실적이 살아 있고, 유가가 놀리며, 환율이 진정된다면 6 월의 검은 월요일은 추세의 종착역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변한 것은 없다. LPDDR 은 여전히 부족하고, 메모리 이익의 방향은 아직 위다. 공포는 소음이고, 실적은 신호다. 소음이 커질수록 신호를 사야 한다.

김경환의 China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06.08



중국/신흥국 투자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중국 분석 김성은 seongeunk@hanafn.com

중국 주식시장의 약점

- 중국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약점과 극복 과정에 대한 평가** : 글로벌 투자자의 중국 주식 포지션이 2021년을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한 원인을 단순 나열하면 대내외 요인만 수십 가지가 넘을 것이다. 일부 투자자는 중국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정책 리스크, '미·중 디커플링'하에 각국의 중국 자산 및 기업 배제 흐름을 제시하고, 일부 투자자는 팬데믹 이후 중국 디레버리징과 디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한 내수 침체와 기업 이익 둔화, 미국 중심의 선진 주식 장기 호황과 신흥 시장내 중국 매력도 하락, 여기에 중국 주식시장의 낮은 개방도와 정책 경직성,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 대비 투자 측면에서 높은 위험 대비 낮은 수익성 등이 중국에 대한 선호도를 낮춘 복합적인 요인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본질적인 두 가지의 약점과 극복 과정을 주목한다.
- 우리는 절대적/상대적인 관점에서 중국 주식의 매력도를 낮췄던 매크로 환경, 정책 경직성, 제도적 약점, 미중 관계 등의 약재가 2025년 이미 정점을 통과하고 2027년까지 계속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금번 자료에서는 주식시장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평가하는 낮은 수익성(ROE)과 개방도(외국인)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평가했다.
- 낮은 수익성(ROE) 문제의 극복 과정** : 중국 주식시장 전체(상해/심천) 주가의 중장기 흐름은 당연히 시장 ROE 추이와 연동되며, 전체 시장의 ROE(A주 전체/A주 금융 제외)는 2021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4년 간 하락했고 2026년 1/4분기 금융을 제외한 전체 시장의 ROE는 저점 확인에만 성공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금융을 포함한 전통산업(부동산/인프라/내구재)의 디레버리징 및 디플레이션과 일치한다. 다만, 전반적인 이익과 시가총액 구성이 신경제(첨단제조/AI/서비스)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2025년부터 대형 테크 지수의 ROE와 주가가 반등하는 디커플링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심천 ChiNext(창업판)의 ROE(TTM기준)가 2024년 말 12% 저점에서 2025년 14%대로 반등을 시작했고, 전체 거래대금의 비중이 5년전 15%대에서 2026년 최대 30%까지 확대되었다. 5월말 기준 ChiNext지수 상위 7대 종목(CATL/Innolight/신이성 등)의 시총 비중은 50%를 돌파했으며, 7대 종목 평균 ROE가 29%를 보이며 전통 대형지수를 압도하고 있다. 우리는 ChiNext가 우량주의 높은 수익성과 수급 밀집이 추가 리레이팅을 촉발하는 대표 케이스가 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상해 Star50, 항셍테크의 재평가로 확산될 수 있다. 우리는 중화권 3대 테크 지수 중심의 투자가 중국 주식의 약점인 '가성비(수익성 대비 밸류에이션)'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2027년까지 수익성 관련 투자 매력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①중국 자본재 업종 재평가와 대장주 수익성 고공행진, ②3대 테크지수 초대형 IPO 증가와 지수 편입 효과, ③수출단가 상승과 반내권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그림 9-12).
- 낮은 개방도(외국인) 문제의 극복 과정** : 중국 주식시장은 2015년 후선강통 도입과 글로벌지수 편입 이후 여전히 낮은 개방도(QFII/후선강통/종목-지수별 외인 제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 위험 상승 하에서 중국 대장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AI 혁명 사이클 하에서 신흥국 주식 투자가 국가 분산에서 소수 성장 업종 베팅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일부 중국 대장주는 Peer 그룹 대비 높은 경쟁력(자본재/부품/AI/에너지)이 더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환경이다. 최근 10년간 중국 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큰 틀에서 수익성(ROE)과 정책(개방/리오프닝)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으며, 정책의 경우 2026년 기준 내국인의 주식 참여 촉진 및 상장사 밸류업 정책에 대한 선명성 대비 개방의 단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2025년부터 외국인 통계 발표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으나, 우리는 후선강통 거래대금 비중과 당국 수시 발표를 토대로 상반기 기준 중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보유 시가총액 기준 5-6%(유통 시가총액 대비), 후선강통 유니버스 기준 8-10%대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는 2026년 중국의 외국인 비중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향후 극복 과정과 변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대내외 전략을 고려해 대형 A주의 홍콩 H주 발행을 계속 촉진하고, 외국인 노출도를 간접적으로 계속 높일 것이다(2025년 CATL/반도체 등). 홍콩의 강구통(본토) 유니버스는 계속 확대를 병행한다. **둘째**, 중국 가계와 기관의 주식 투자 확대는 구조적이며 정책 지원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외국인의 공백은 중국 기관(정부/가계/연기금) 비중 상승이 완충할 전망이다. **셋째**, 위안화 강세 용인과 테크 지수 종목의 외국인(기관) 추가 개방이 예상된다. 2026년 위안화 강세는 자체 수급이 주도하고 있으나 중장기 방향성은 외국인 비중 확대에 우호적이다. **넷째**, 우리는 2026년 10월 당대회와 2027년 10월 당대회(4연임 결정) 사이 구조적인 개방 확대 조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Econ Snapshot

Economy | 2026.6.8



Economist 전규연 kychun@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미국 5월 비농업 고용: 주도 업종 분포 개선. 추세는 지켜볼 필요

미국 5월 비농업 고용 Review: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업종 분포 개선. 단, 일시적 효과도 가세

- 미국 5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17.2만 명 증가하며 예상치(8.8만 명)를 크게 상회. 지난 3월 고용은 18.5만 명 → 21.4만 명(+2.9만 명), 4월 고용은 11.5만 명 → 17.9만 명(+6.4만 명)으로 상향 조정됨. 직전 2개월 고용의 상향 조정은 25년 6월 이후 처음
- 5월 고용 호조는 1) 여가/접객, 지방정부 고용의 일시적 증가, 2) 헬스케어 고용의 견조한 흐름 지속, 3) 건설업 부문 업황 호조 등이 맞물리며 나타난 것으로 판단. 업종별 고용 분포를 나타내는 고용확산지수는 54.4%로 4월(54.0%)보다 상승해 고용 증가 업종이 이전보다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 6/11~7/19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여가/접객(7.0만 명) 채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정부 고용도 최근 추세보다 다소 강하게 증가(5.5만 명). 헬스케어 업종은 외래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3.8만 명 증가. 한편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확대로 건설업 고용도 1.7만 명 증가
- 미국 5월 실업률은 4.3%로 3개월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으며 예상치(4.3%)에 부합. 경제활동참가율도 61.8%로 전월과 동일. 핵심 경제활동참가율(83.9%)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26년 들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세
- 미국 5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3% 상승하며 예상치(0.3%) 부합. 제조업 임금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 압력은 다소 줄어들고 있음

균형 수준에 근접한 고용시장. 향후 1~2주 간 물가와 통화정책 민감도 높아질 것

- 월드컵 등 일시적인 이벤트로 여가/접객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의 고용이 증가한 만큼 금번 고용 호조가 추세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음. 실업자 신규 진입 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5월 평균 실업 기간이 26주로 202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노동시장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려면 노동 수요가 추세적으로 늘어날 필요. JOLTS 구인자수가 반등했지만(4월 761.8만 명, 예상치 686.6만 명), 서비스업 위주로 임금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노동 수요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다만 당장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시장은 균형에 근접해 있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경계 심리는 높아질 가능성 확대. 금리선물시장은 12월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47.4%,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38.2%,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을 10.9%로 반영하는 중
- 금주 미국 5월 CPI(6/10)와 PPI(6/11) 발표를 앞두고 있고, 차주 6월 FOMC(6/18)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질 것. 컨센서스 상 CPI는 전월비 0.5%, PPI는 전월비 0.7%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미국 휘발유 리테일 가격 증가율이 4월 14.6%에서 5월 8.3%로 낮아지며 에너지 기여도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에너지 주도의 물가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 관건은 2차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는지 여부. 6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26년 1회 인하 → 연내 금리 동결로 상향 조정되고 성명서의 완화 편향 문구(금리 추가 조정)가 삭제될 것으로 예상
- 하나증권은 미 연준이 연내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 전망 유지. 전쟁 변수에 따라 경제 및 물가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 기준금리는 약간 긴축적인 수준이므로 향후 물가 흐름을 지켜볼 시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2026년 6월 8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주간 강테마(신고가로 보는 글로벌 테마)

잠시 방어주와 쉬어가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간 리뷰: 에이전틱 AI 확대로 반도체 CapEx 확대 기대감

지난주 AI 수요 둔화 노이즈와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하락했지만 시발 구조적 반도체 CapEx 상향 기대감으로 반도체 장비 테마가 부각됐다. 한국, 미국, 일본 주요 증시에서 128개의 신고가 중 37개가 AI 반도체/인프라 관련주였다. 그 중에서 반도체 장비 테마의 주간 수익률이 +11.13%로 AI 반도체/인프라 평균 +2.19%, 신고가 평균 +2.57%를 크게 상회하며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

지난주 반도체 장비주 강세는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확대 기대감에 반도체 제조사 CapEx 확대 수혜가 핵심이다. 에이전틱 AI는 단순 추론 대비 계획 수립, 검색, 도구 호출, 검증 등을 반복해 토큰 사용량과 컨텍스트 길이 증가로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는 전공정(WFE, Wafer Fab Equipment) 중심 장비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연결됐다.

반도체 장비주가 유독 강세를 보인 이유는 SK하이닉스의 생산능력 확대 기대감에 대한 높은 민감도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의 2030년까지 SK하이닉스 생산능력 2배 확대 발언에 부진하던 반도체 장비주 주가를 상승 견인했다. 메모리 고객사 노출도가 높고, 중착·식각 등 메모리 CapEx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전공정 중심 장비주 강세를 보였다.

주간 전망: 새로운 연준 의장의 첫 FOMC 경계감 유효

이번주 주목 테마로 경기 방어주 테마를 제시한다. 지난주 AI 노이즈 확대와 금리 인상 우려로 기술주 조정이 나타난 가운데,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FOMC를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 2000년 이후 2006년, 2014년, 2018년 3차례 연준 의장 교체 당시 첫 FOMC 직전 주간 S&P 500은 모두 하락했으며 평균 수익률이 -0.77% 였다. 업종 별로는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통신), 필수소비재 순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고, IT 업종은 -0.86%로 지수를 하회했다.

지난 3~5일 신규 미국 3개월 신고가에서 건강관리, 금융, 리츠,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등 방어적 업종이 강세를 보인 만큼 이번주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로 위험자산 선호심리 둔화 속 경기 방어주 순환매 가능성을 전망한다.



Analyst 강윤형 kangyh@hanafn.com

2026년 06월 08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710,000원(상향)
현재주가(6.05) 494,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160.59
52주 최고/최저(원)	626,000/270,000
시가총액(십억원)	6,328.6
시가총액비중(%)	0.09
발행주식수(천주)	12,811.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8.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4.0
외국인지분율(%)	12.56
주요주주 지분율(%)	
한미사이언스 외 4인	50.09
국민연금공단	10.0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657.5	1,793.0
영업이익(십억원)	274.9	310.4
순이익(십억원)	209.3	243.7
EPS(원)	14,528	17,286
BPS(원)	112,058	128,061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495.5	1,547.5	1,698.1	2,043.2
영업이익	216.2	257.8	259.6	382.6
세전이익	171.3	213.5	273.0	407.9
순이익	121.3	169.6	224.2	335.0
EPS	9,470	13,235	17,502	26,152
증감율	(17.04)	39.76	32.24	49.42
PER	29.62	34.15	28.23	18.89
PBR	3.19	4.48	4.17	3.46
EV/EBITDA	12.93	17.38	20.02	14.53
ROE	11.89	14.53	16.44	20.51
BPS	88,067	100,935	118,574	142,744
DPS	1,250	2,000	2,000	2,00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한미약품 (128940)

L/O 가이던스 달성, 그러나 아직 몇 발 더 남았다

소네펜글루타이드가 기술이전 될 줄은, Lilly일 줄은

6월1일 오전 공시로 Lilly향 기술이전 소식을 알렸다. 대상은 소네펜글루타이드 HM15912 (Sonepeglutide, 과제명: LAPSGLP-2 analog)이고, 최대 \$1.26B (약 1.9조원) 규모이고, 선급금으로 \$75M (약 1,130억원)을 수령한다 (로열티 별도). 총 규모 대비 선급금 비율은 약 6%인데, 최근 글로벌 기술이전 규모 및 계약금 동향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희귀의약품으로 개발 중인 것을 고려하면 협상이 잘 된 계약이라 판단한다. 한편, 주요 적응증인 단장중후군의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Teduglutide(Gattex/ Revestive)가 있는데 '25년 글로벌 매출 \$936M(약1.4조원)에 불과하고 '24년 대비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계약 내에 단장중후군과 같이 소장 기능 약화와 관련된 질환이나 증상(ex. T2D, 크론병, 화학항암제독성 등)으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된 옵션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소네펜글루타이드는 FDA, EMA, MFDS 희귀의약품 (2019), FDA 희귀 소아질병 의약품 (RPDD, 2020), 패스트트랙 (2021) 지정 받았다. 단장중후군 환자 대상 글로벌 P2 상 진행 중이고 '27년 2Q에 종료할 예정이다. 특히 월1회 SC투여하는 점에서 매일 투여하는 Teduglutide 대비 상당한 강점을 갖는다. 시장이 작은 희귀 의약품을 탐내는 자가 있을 거라 예상하기 어려웠기에 이번 Lilly향 기술이전은 매우 서프라이즈이다. 비만 관련 주요 타겟 펩타이드는 거의 다 가진 Lilly라서 물질 자체의 반감기로 월1회가 가능함을 임상2상까지 확인한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 듯하다.

여전히 추가 기술이전을 기대할 만 하다

L/O를 연간 가이던스로 내세운 자신감을 보아, 다수의 잠재 파트너와 기본적인 term sheet은 확정된 수준의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인 상황으로 짐작된다. 비만 치료제 라인에서 L/O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던 건,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중에 동사가 잠재력을 지닌 물질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HM15275(삼중작용제), HM17321(근육증가),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와 같은 후보물질이 연내 추가 L/O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HM17321은 SAD를 마쳤고, 이르면 7-8월 경 데이터 공개를 하는 행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여전히 올해 하반기 Top pick 의견을 유지하며 이벤트를 기다려 본다.

목표주가 71만원 상향,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가치 조정

sonepeglutide의 가치는 6,527억원으로 산정하였다. RPDD까지 받았기에 P2상에서 가속승인 가능성도 있지만, P2 환자 수가 18명으로 소수인 것을 고려해 P3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LAPSCOVERY 기술을 적용했기에 한미사이언스(30%로 추정)에 주는 비중도 고려했다. Target EV/EBITDA는 15배로 Peer 대비 높지만, 향후 시료 생산에 따른 이익과 마일스톤을 수령함에 따라 영업가치가 증가할 것임을 반영하여 할증하였다. 한편, 에피노페그듀타이드는 최근 경쟁사의 긍정적인 P2상 결과를 고려하여 할인 조정하고, HM17321은 sonepeglutide를 통한 동사의 L/O 협상력(병용임상 옵션 가능성 추가)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였다.

2026년 6월 8일 | 기업분석_Update

BUY (유지)

목표주가(12M) 650,000원(상향)
현재주가(6.05) 460,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8,160.59
52주 최고/최저(원)	535,000/158,800
시가총액(십억원)	74,678.2
시가총액비중(%)	1.12
발행주식수(천주)	162,167.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562.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03.8
외국인지분율(%)	31.26
주요주주 지분율(%)	
이재용 외 11 인	38.13
케이씨씨	10.4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4,029.6	46,681.8
영업이익(십억원)	3,644.3	4,134.5
순이익(십억원)	3,665.6	4,013.7
EPS(원)	15,933	17,538
BPS(원)	334,813	352,80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2,103.2	40,742.2	44,243.5	46,625.7
영업이익	2,983.4	3,292.7	3,527.9	3,883.6
세전이익	3,722.5	4,260.3	5,320.0	7,288.6
순이익	2,230.3	2,439.1	2,492.3	3,046.2
EPS	12,280	14,165	15,089	18,616
증감율	3.86	15.35	6.52	23.37
PER	9.35	16.91	35.46	28.74
PBR	0.64	0.81	0.83	0.81
EV/EBITDA	6.68	10.80	11.48	10.19
ROE	6.83	6.02	3.20	2.84
BPS	180,536	294,897	647,379	663,194
DPS	2,600	2,800	2,800	2,80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삼성물산 (028260)

의심할 필요가 없는 PBR 0.7배 저렴한 주가

투자 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650,000원으로 상향, TOP PICK으로 추천

삼성물산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기존 600,000원에서 650,000원으로 8.3%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43.0배를 적용했다. 26년 BPS 추정치에 P/B 1.0배를 적용한 것과 같다. 최근 주가가 상승했어도, 여전히 삼성물산의 밸류에이션은 저렴하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 반영시 PBR 0.7배다. 원전과 태양광, 계열사 투자까지 프리미엄(특히 PEER!)을 고려할 때, 삼성물산 매수를 추천한다.

PBR 0.7배는 여전히 싸다

삼성물산의 현재 컨센서스 기준 PBR은 1.4배다. 하지만 현재 시장 추정치 상의 삼성물산의 주요지배지분은 삼성전자의 지분가치 상승이 반영되어있지 않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1분기 말 대비 현재 약 16만원 상승했으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주식(3.0억주)를 고려할 때 약 48조원의 지분가치 증가가 있었다. 삼성생명도 주가가 1분기말 대비 20만원 상승했으며, 보유한 주식 3,869만주를 고려할 때 약 7.8조원의 지분가치 증가가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의 삼성물산의 주요지배지분은 106조원으로, 현재 컨센서스 52조원과 큰 차이가 있다. PBR 0.7배는 이러한 가치를 산정했을 때의 밸류에이션이다. PBR 0.7배는 다른 지주사(SK 1.4배, SK 스퀘어 3.3배, 두산 18.7배, CJ 1.2배)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며, 시총 10조원 이상의 건설사(현대건설 1.7배, 삼성E&A 1.8배, 대우건설 2.4배)에 비교해서도 낮다. 올해 분기별로 증가하는 이익, 속도가 빨라지는 반도체 투자와 그에 따른 매출액 성장의 기대, 원전(대형원전, SMR) 수주 추진, 라미안의 수주 성장, 미국 태양광 운영 사업 추진(IPP사업자) 등의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부여할 내러티브까지 풍부하다.

3분기, 4분기 원전 스토리도 존재

3분기 원전 스토리도 존재한다. 3분기에 베트남 팀코리아 시공사 선정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삼성물산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7월 대미투자 관련하여, 대형원전 혹은 SMR이 팀코리아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삼성물산이 부각 받을 수 있다. 4분기에는 루마니아 대형원전 수주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여기에 2027년에는 유럽에서 SMR 수주가 기다리고 있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하다.

2026년 06월 08일 | 기업분석_Issue Comment

Not Rated

현재주가(6.5) 92,3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02.44
52주 최고/최저(원)	110,000/19,445
시가총액(십억원)	4,043.1
시가총액비중(%)	0.72
발행주식수(천주)	43,804.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19.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9.6
외국인지분율(%)	7.66
주요주주 지분율(%)	
이슬기 외 11 인	20.4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2	12
영업이익(십억원)	(26)	(26)
순이익(십억원)	(30)	(30)
EPS(원)	(663)	(685)
BPS(원)	274	(411)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1	1	19	11
영업이익	(76)	(69)	(13)	(25)
세전이익	(72)	(164)	4	(30)
순이익	(68)	(136)	4	(29)
EPS	(2,109)	(4,120)	110	(706)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적전
PER	0.0	0.0	0.0	(17.2)
PBR	0.0	0.0	0.0	7.3
EV/EBITDA	0.0	0.0	0.0	0.0
ROE	(51.6)	(1,441.3)	8.4	(40.8)
BPS	4,001	286	1,254	1,659
DPS	0	0	0	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디앤디파마텍 (347850)

성공적인 MASH 결과 들고 다음 스텝으로 (NDR 후기)

48주차 조직생검 결과 공개 - 개선 수치와 통계적 유의성 모두 우수

MASH 치료제 DD01(Zabopegdutide)의 48주차 조직생검 결과를 공개하였다. 2차 지표는 MASH 환자에 한해서 생검을 통해 MASH 개선 및 섬유화 개선 지표 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Protocol을 준수(Per Protocol)한 환자들 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위약 보정하여 섬유화 악화 없는 MASH 해소 57%(p=0.0003), MASH 악화 없는 섬유화 개선 34%(p=0.032), MASH 해소 및 섬유화 개선 동시 달성 32%(p=0.019)임이 확인되었다. 주요 부작용은 대부분 경증~중증도 수준이었고, 약물 관련 부작용(위장관계)으로 인한 중단율은 DD01 투약 환자수 25명 중 2명(PO 보정 8%)이었다. 2주간 20mg 투여 후, 바로 유지 용량인 40mg으로 올려 투여하는 짧고 단순한 titration을 수행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우수한 내약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GLP-1 계열 경쟁약물 중 Altiumimmune의 Pemvidutide가 titration이 가장 짧는데 8주를 수행한다.

기술이전 논의 중, 기존 사례 대비 빠르게 진행될 것

다음 데이터 발표 시기는 11월 미국간학회(AASLD)가 될 것 같고, 바이오 마커나 하위 그룹 분석 등을 포함한 상세 내역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생검 분석에 사용한 섬유화 관련 AI 프로그램인 qFibrosis 데이터도 준비 중이고 이 프로그램 개발사인 HistoIndex와 임상 결과에 대한 공동 학회 발표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qFibrosis는 병리학자 판독 대비 더 자세하고 민감한 섬유화 개선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Roche 및 Novo Nordisk에 인수된 89bio와 Akeru 임상에 적용되었고, Tirzepatide 임상3상에도 적용되어 그 결과값이 학회나 논문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현재 기술이전을 위한 Confidential Deck을 준비 중인데, 25년 6월 1차 평가지표 공개 후 꾸준한 피드백을 주고 받은 잠재 후보자들이 있어 Due Diligence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GSK가 Efimosfermin를 인수한 사례 참고 (총 계약 규모 약 3조원)

DD01의 기술이전 규모는 GSK가 Boston Pharmaceuticals로부터 Efimosfermin를 인수한 사례로 가늠할 수 있다. 당시 총 계약 규모는 \$2B(약3조원)에 선금금 \$1.2B(약1.8조원)을 지급하였다. 이 계약은 일반적인 L/O가 아닌 자산인수계약(Boston에 로열티 지급)이기 때문에 선금금이 큰 것임은 참고해야 한다. 최근 총 계약 규모의 6% 수준의 선금금을 지불하는 추세인데, 조직생검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선금금을 요구해 볼만 하다. Efimosfermin은 Q4W 투약하므로 편의성에서 이점을 갖지만, DD01은 적은 환자수로 전체 효능 항목에서 더 나은 결과(Efimosfermin은 복합 지표 p=0.07로 유의성 미달성)를 보였으므로 경쟁력이 있다.

2026년 06월 08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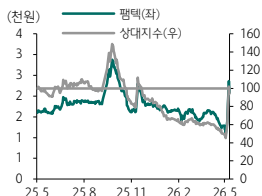
현재주가(6.5) 2,085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1,002.44
52주 최고/최저(원)	2,875/1,075
시가총액(억원)	614.9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29,490.2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68.2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22.4
외국인지분율(%)	1.63
주요주주 지분율(%)	
김재용 외 8인	44.2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N/A	N/A
영업이익(억원)	N/A	N/A
순이익(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019	961	444	387
영업이익	246	108	(37)	(41)
세전이익	225	75	(21)	(40)
순이익	169	75	(1)	(54)
EPS	648	261	(4)	(209)
증감율	122.7	(59.7)	적전	적지
PER	0.0	14.6	(392.8)	(8.6)
PBR	0.0	1.6	0.7	0.8
EV/EBITDA	0.0	0.0	0.0	0.0
ROE	37.6	11.0	(0.2)	(10.2)
BPS	1,562	2,383	2,340	2,136
DPS	0	30	0	0



Analyst 박찬솔 chansolpark@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팜텍 (271830)**IPO 주관사 업데이트: 반도체 주도 성장****카메라모듈/반도체 장비 비중이 높은 자동화 업체**

카메라/반도체/스마트팩토리/모빌리티 산업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다. 카메라모듈과 반도체 장비 실적이 연간 매출액의 약 80% 비중을 차지한다. 1) 카메라모듈 부문 핵심 제품의 경우 제품 설계와 자재 조립, SW 개발을 직접 진행한다. Semi-auto, Full-auto 장비 라인업을 모두 보유 중이다. 현재 검사/조립/이송 등 전공정에서 신규 장비를 개발 중이며, 카메라 모듈 부문의 경우 고배율렌즈 검사 장비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했다. 2) 반도체 부문은 검사/세정/평가/이송/패킹 등 다양한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고객사에 시료 분석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 초도품 공급을 시작했다. 향후 양산 장비 납품 노력의 일환으로 로보틱스 전문업체 티아이에스를 인수하고, EFEM/Sorter 반도체 자동화 사업 고도화를 진행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대할 것은 반도체 주도 성장

2025년 팜텍 R&D 과제의 핵심은 고성능 반도체 테스트 상황에서 발행하는 열을 제어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기술로 안정적인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반도체 신뢰성 평가의 정확도 향상을 목표로했다. 현재 제품화가 완료된 단계로, 양산 장비 납품 및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국면이다. 현재 반도체 전방 시장의 제품 수요를 감안할 때 팜텍의 신규 장비 수요도 유지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반도체 신제품 DTFS/DTFH Peltier 검사 장비는 기존 Chamber 방식보다 빠른 속도로 온도를 조절해, 반도체 테스트 시 온도 변화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제품이다. 기존 방식 대비 5분 이내로 단축하고(기존30-60분), 온도 균일도를 오차범위 1도 수준으로 정밀하게 제어해 약 37.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Memory Test Handler/EFEM 등과 더불어 DTFS/DTFH Peltier 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국면이다.

2026년 실적 전망 및 밸류에이션

팜텍은 매출액 26년 650억원(OPM 5%), 27년 1,000억원(OPM 10-15%)을 가이던스로 제시 했다. 다만 고객사의 사업 현황을 고려해도 아직까지 분기 단위 실적 확대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반도체 고객사의 양산 라인에 본격 채택될 때 명확한 밸류에이션 추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다만 가이던스를 토대로 본다면 현재 밸류는 26년 포워드 기준 POR 19.0배 수준이다.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22년 팜텍은 매출액 1,018억원을 기록한 바가 있어, 향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팜텍 주가가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2026년 6월 8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6월 5일

NC (036570)

BUY | TP 420,000원 | CP 281,500원

시프트업 (462870)

BUY | TP 45,000원 | CP 30,550원

게임

SGF 2026 리뷰. 시프트업/NC 신작 정보 공개

서머 게임 페스트, 국내 게임사들의 존재감 확대

6/6(현지 시각) 서머 게임 페스트 2026(SGF 2026)가 진행됐다. 2020년부터 시작하여 E3의 빈자리를 채웠다는 평가를 받는 게임쇼다. 올해도 캡콤, 스쿼어 에닉스, EA, 에픽게임즈 등이 참여하여 신작 소식을 공개했다. 주요 게임으로는 스쿼어 에닉스가 [파이널 판타지7 리벨레이션]의 2027년 봄 출시를 예고했다. 파이널 판타지7 리메이크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시리즈 최대 스케일로 오픈 월드를 구현했다. 캡콤은 [바이오하자드 RE: 코드 베로니카]를 공개했다. 2027년 출시 예정이다. 작년 네오위즈의 [P의 거짓: 서곡] 깜짝 출시에 이어 올해도 국내 게임사들도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 레인]을 최초 공개했으며 NC는 [아이온2 글로벌]과 자회사 아레나넷이 개발하는 [길드워3]를 최초 공개했다. 글로벌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게임쇼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존재감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후속작 정보 공개

시프트업은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 레인]의 트레일러를 최초로 공개했다. 2024년 4월 출시한 [스텔라 블레이드]의 후속작이다. 새로운 캐릭터 이비(Evie)가 등장, 전작 대비 확장된 스케일의 예고했다. 3분 31초의 짧은 티저였지만 전작과 차별화되는 요소는 분명했다. 전작의 검 대신 건틀릿을 주무기로 사용, 보다 타격감 높은 액션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의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사이버펑크 세계관으로 확장된 배경도 확인된다. 김형태 대표는 이전 인터뷰를 통해 트레일러와 인게임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공개된 퀄리티로 게임 개발, 출시가 이뤄진다면 전작의 성공을 이어 이 상적인 IP 구축을 예상한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이미 누적 판매량 450만장 이상으로 추정된다.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 레인]은 전작과 달리 시프트업이 직접 퍼블리싱하여 PC/콘솔 동시 출시 계획이다. 출시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8년으로 예상된다.

NC: 아이온2 글로벌, 길드워3 정보 공개

NC는 [아이온2 글로벌]의 정보를 공개, 출시일을 9월로 확정했다. 스팀/퍼플 동시 출시 예정이며 출시일이 기존 예상과 동일하기에 추정치 변경은 없다. 한국/대만 출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용자 확보를 예상, 출시 이후 올해 매출 2,010억원을 유지한다.

또한 자회사 아레나넷이 개발하는 [길드워3]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길드워2] 출시 이후 14년만에 선보이는 후속 라인업이다. 현재 활발히 서비스하는 [길드워2]는 지난 10월 6번째 확장팩으로 매출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 SGF에서 최초 공개되었기에 이후 베타 테스트 일정, 출시일 확정에 따라 추정치 반영 예정이다.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은행주 Outperform 현상 이어질 전망

은행 Weekly | 2026.6.8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은행주 대폭 초과상승. 금리 모멘텀과 ELS 과징금 감경, 외국인 순매수 확대와 은행지주사 증권사 자본규제 완화 소식 때문

- 전주 은행주는 10.3% 상승해 KOSPI 하락률 3.7% 대비 대폭 초과상승해 전전주의 초과하락 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 지난주 은행주 상승의 배경은 1) 미국 5월 비농업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금리 모멘텀에 기름을 부었고, 2) 금융위가 금감원으로 반력한 홍콩 ELS 과징금이 6천억원대로 감경되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3) 여기에 반도체 조정에 따른 KOSPI내 수급 쓸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외국인들이 확연한 은행주 매수세로 돌아선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4) 금융당국이 생산적금융 확대 연장선으로 자본규제 TF를 열고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들에 적용되는 RWA 등 자본산출 방식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큰폭 상승 전환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3%로 한주간 9bp 상승했으며, 2년물 국채금리는 15bp 상승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한주간 40원 넘게 상승해 1,559.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주 외국인은 KOSPI를 4일동안 22.5조원이나 순매도했으며 반면 은행주는 2,530억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기관은 KOSPI를 9,600억원 순매수했고, 은행주도 430억원 순매수했다

우리는 홍콩 ELS 과징금 최종 5천억원 내외 예상. 2분기 중 과징금 환입에 따라 실적이 컨센서스를 추가 상회할 가능성 높아졌음

- 언론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과징금을 기존 1.4조원에서 6,000억원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7월초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은행별 과징금은 금주 은행에 통지 예정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기 어렵다
- 향후 관심사는 금융위에서의 추가 감경 여부인데 금융위 감경 권한이 더 폭넓은 점을 감안하면 소폭이라도 추가 감경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과징금이 최종적으로 5,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이 경우 KB금융 2,500억원, 신한지주 750억원, 하나금융 650억원 내외 전망한다. 기존에 은행들이 손실로 인식한 과징금이 KB금융 3,609억원, 신한지주 1,527억원, 하나금융 1,263억원이므로 우리의 가정대로라면 KB금융은 약 1,000억원 내외, 신한지주와 하나금융도 500억원 이상씩 환입 예상한다
- 7월초에 제재가 확정된다면 이를 2분기 손익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분기 실적을 상회시키는 일회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추가 상회할 가능성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부담 요인이지만 2분기 CET 1 비율 상승 기대. 다만 환율 계속 추가 상승시에는 관련 우려 확대 여지 있음

- 원/달러 환율이 1,560원선에 근접하면서 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예상한다. 은행주는 현재 환율 말고는 네거티브 요인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현 환율이 1분기말 대비 약 40원 이상 오른 상태이므로 6월말까지 현재 환율이 유지된다면 대형 은행지주사들의 경우 약 10bp 내외의 CET 1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외화NIM과 손익에도 소폭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 다만 손실사건 운영리스크 RWA 산출 제외, 해외장기지분투자/해외점포이익잉여금 RWA 제외 영향 등으로 2분기 중 약 25bp 내외의 CET 1 비율 상승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상승 폭이 축소될 뿐이지 2분기 CET 1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향후에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추가 상승시에는 관련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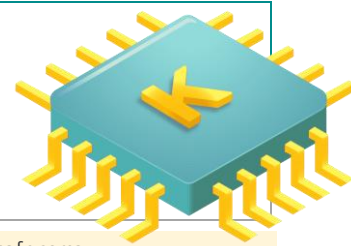
장중 전고점 뚫은 KB와 신한. 전고점 상회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 다만 금주는 중소형종목들의 Gap 메우기 반등세 시현 기대

-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장중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직전 고점이었던 2월 대비 비은행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확연히 확인되었고, 금리 모멘텀도 더 뚜렷해졌다는 점에서 전고점을 상회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 2분기에만 은행주가 여전히 KOSPI를 50%p 넘게 초과하락하고 있어 상대적인 가격 부담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이다
- 다만 최근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상승 폭이 상당했고, 환율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주는 환율 영향이 적은 못 올랐던 중소형종목들이 Gap 메우기 성격의 반등세를 시현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한다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iM금융(매수/TP 24,500원)과 BNK금융(매수/TP 24,500원)을 제시

LPDDR 과부족이 낳은 오해.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 2026.6.8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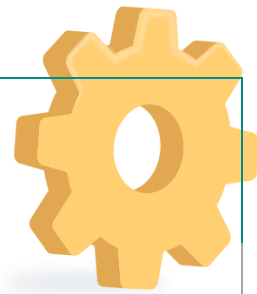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및 주간 리뷰: 국내외 메모리 업체 급락

- 5월 영업일 평균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은 전년동월대비 278% 증가한 13.9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DRAM은 전년동월대비 466% 증가한 6.3억 달러, NAND는 241% 증가한 9,565만 달러를 기록했다. MCP와 SSD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67% 증가한 5.3억 달러, 388% 증가한 2.2억 달러를 달성했다. 전월대비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46%, DRAM은 51%, NAND는 26%, MCP는 44%, SSD는 3% 증가했다. 예상보다 강한 메모리 가격 상승에 기반해 모든 제품들이 전년동월대비/전월대비 증가세를 시현했다.
- 코스피 지수는 3.7% 하락하면서 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삼성전자는 3.8%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는 11.3%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국내외 메모리 업체 중에서 가장 주가 퍼포먼스가 약했던 반대급부 움직임이 나왔다. 다만, 주 초반 긍정적이었던 주가 흐름이 주 후반에 반락했다. Vera Rubin에 LPDDR 탑재량이 절반으로 준다는 SemiAnalysis의 보고서 때문이다. Micron은 이틀간 20% 하락하며 메모리 수요에 생긴 변수가 과하게 반영되었다. 하나증권은 LPDDR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Nvidia가 탑재량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고 판단한다.
- 코스닥 지수는 6.7% 하락하면서 2주 연속 부진했다. 코스닥 하락 속에서도 하나증권 커버리지 종목들은 장비 업체들 중심으로 양호한 주가를 시현했다. 메모리 및 파운드리 업체들의 CAPEX 상향과 2027년 신규 Fab 오픈 등으로 외형 성장 가시성이 높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소재 업체들은 장비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했는데, 장비 업체들의 외형 성장 가시성과 실적의 선제적 반영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불리했다고 풀이된다.

전망 및 전략: 주가 조정 구간을 비중확대 기회로

- SemiAnalysis에서 Nvidia가 차기 AI 플랫폼 Vera Rubin NVL72에 LPDDR5X 탑재량을 54TB에서 27TB로 줄인다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로 인해 반도체, 특히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금요일에 각각 6.4%, 9.9% 하락했고, Micron은 이틀간 20% 가까이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도 가장 부진했다. Nvidia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하나증권은 5월 15일 발간한 “메기남 등장” 보고서를 통해 2026~2027년 Nvidia가 LPDDR 구매자 중에 1위 업체가 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Vera Rubin 물량이 본격화되는 2027년에는 Nvidia가 필요로 하는 LPDDR 수요량이 공급량대비 36%에 달하게 되어 공급 부족이 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5월 21일 Nvidia가 실적발표에서 언급한 Vera CPU 별도 판매 예상 매출액 200억 달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나증권의 LPDDR 수요/공급 전망에 Vera CPU 별도 판매까지 포함시키면 Nvidia의 2027년 LPDDR 필요 물량은 공급능력의 절반 이상으로 추산될 수 있다. 이는 Nvidia가 LPDDR 때문에 Vera Rubin 출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다. Nvidia가 실제로 LPDDR 탑재량을 줄인다면, 이는 Vera Rubin 출하를 위한 고육지책이라 판단된다.
- 현재 Nvidia의 주력 제품인 GB(Grace Blackwell)에도 480GB의 LPDDR이 탑재되고 있고, NVL72 랙 기준 탑재량은 18TB이다. Vera Rubin이 탑재량을 절반으로 낮추면 NVL72 랙당 탑재량은 27TB가 된다. Vera Rubin의 LPDDR 탑재량은 GB보다 50% 증가하게 된다. 즉, Nvidia가 Vera Rubin의 LPDDR 탑재량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급 부족 상황인 LPDDR 수급 밸런스에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 Nvidia의 LPDDR 탑재량 축소는 LPDDR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현재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다. Nvidia발 LPDDR 공급 부족으로 인해 DRAM의 Blended ASP 상승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는 여전히 상향 여력이 남아 있다.



기후부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하향 안정화 언급

철강금속 Weekly | 2026.06.08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96만원(WoW, 0.0%), 열연 수입유통가: 92만원(WoW, 0.0%), 철근 유통가: 89.5만원(WoW, +1.7%), 후판 유통가: 98만원(WoW, 0.0%)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100달러(WoW, +1.1%), 중국 열연 유통가: 3,398위안(WoW, -0.4%), 중국 냉연 유통가: 3,833위안(WoW, -0.2%), 중국 철근 유통가: 3,325위안(WoW, -0.3%)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102.1달러(WoW, -3.3%), 한국 스크랩가: 47.9만원(WoW, +0.6%), 호주 원료탄(FOB): 243달러(WoW, +1.3%)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3,731달러(WoW, +0.9%), 아연: 3,510달러(WoW, -0.2%), 연: 1,994달러(WoW, -0.7%), 니켈: 18,360달러(WoW, -2.7%), 금: 4,337달러(WoW, -4.9%), 은: 69.1달러(WoW, -8.9%)

- 국내 철강 유통가격: 일부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상 시도 철회로 판재류 가격 보합, 철근 가격은 강세 기조 지속
- 중국 철강 유통가격: 비수기 돌입에 따른 중국내 수요 둔화 우려와 재고 증가 등으로 3주 연속 하락
- 산업용 금속가격: 미달러 강세와 이란의 주변국 공격에 따른 중동 리스크 확대로 구리 제외 전반적으로 하락

철강금속기업 주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POSCO홀딩스: 39만원(-7.9%), 현대제철: 3.59만원(-10.6%), 세아베스틸지주: 4.90만원(-8.5%), 고려아연: 126.5만원(-7.9%)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5.74위안(-4.8%), A. MITTAL: 59.22유로(-0.2%), NSSMC: 547.0엔(-3.5%), TATA STEEL: 206.77루피(-1.0%), NUCOR: 254.39달러(+1.8%)
- 총평: 중국 철강 가격 하락으로 아시아 철강사들 주가 대부분 조정 반면, 미국 철강사들 주가 강세 두드러져...

1년 간 10배 오른 미국 태양광 모듈업체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6.08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1년 간 10배 오른 미국 태양광 모듈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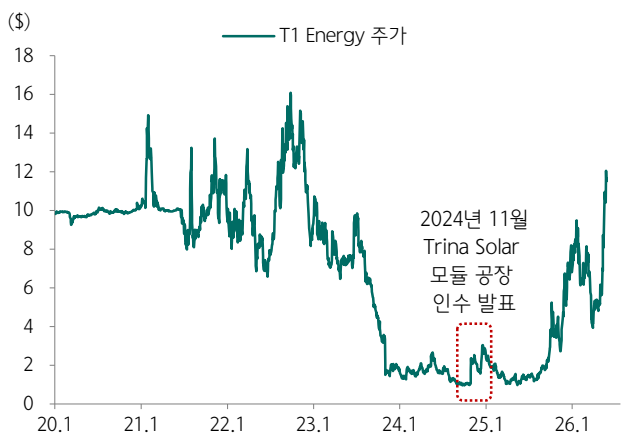
• **총평**

- WTI 90.5\$(+4%), Dubai 91.3\$ (-12%). 정제마진 26.1\$(WoW +3.78\$). 유럽 디젤 선물 WoW +5%
- 납사 -17% vs. 에틸렌 -14%, 프로필렌 -9%, MDI -7%, ECH -6%. Top Picks OCI홀딩스, 한화솔루션

• **1년 간 10배 오른 미국 태양광 모듈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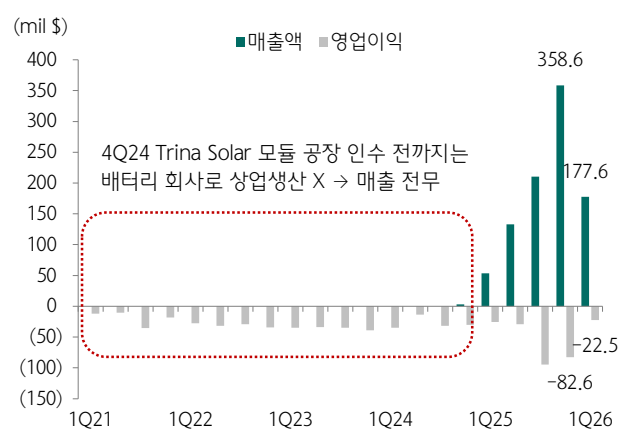
- **T1 Energy, 1년 주가 수익률 약 10배:** T1 Energy의 전신은 FREYR Battery로 2025년 2월 회사명/티커 변경. 2018년 노르웨이에서 설립되어 조지아에서 ESS 배터리 셀 생산을 목표로했으나, 착공 전 단계에서 중단. 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중국산 대비 원가경쟁력이 약화된 영향. 사업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FREYR은 2024년 12월 중국 Trina Solar의 텍사스 5GW 태양광 모듈 공장을 인수해 2025년부터 본격 생산 시작.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주가 또한 2025년 초~중순을 저점으로 약 10배 상승
- **수직계열화 전략:** T1 Energy은 텍사스 G1 Dallas에 태양광 모듈 설비 5GW를 보유, 2027년에는 G2 Austin에서 태양광 셀 2.1GW를 가동할 계획(Phase 1)이며, 향후에는 5GW로 확장할 계획(Phase 2). CEO는 1Q26 실적발표에서 'FEOC 셀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Non-FEOC 셀 중심의 공급망 구축 방침을 재차 강조. 특히, Hemlock과 미국산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Corning과는 웨이퍼 계약을 체결한 상태. Corning 웨이퍼는 2026년 하반기부터 G2 Austin 공장으로 공급될 예정. 참고로, 한화큐셀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 8.4GW, 셀/웨이퍼/잉곳 3.3GW를 보유
- **영업적자 대폭 축소. 흑자전환에 Section 232가 중요:** AMPC를 포함한 영업이익은 물량/판가 개선 덕에 3Q25 -94.7mil\$ → 4Q25 -82.6mil\$ → 1Q26 -22.5mil\$로 적자 대폭 축소. 참고로, 한화큐셀은 일회성 손실이 발생한 4Q25를 제외하면 4Q24부터 흑자를 기록. T1은 총 5GW 중 1GW는 Cost-Plus, 2GW는 Fixed-Margin, 나머지는 현물가격 판매. Section 232 결과 확정 이후 하반기 모듈 가격 30 cent/W 형성 시 의미 있는 이익 창출 가능하다고 설명. 정부와 Section 232 관련 논의를 진행 중
- **결론: 1) T1 Energy/First Solar 모두 비중국 공급망 기반 주가 강세. 한화솔루션/OCI홀딩스도 같은 구조 2) T1과 한화솔루션은 GW 대비 동일한 EV로 평가 중. 수직계열화 및 규모의 경제, AMPC 수취 금액 감안 시 향후 한화솔루션의 상대적 저평가 부각 예상**
- **이란 전쟁 100일+, 종전 협상 교착: 에너지 산업 Update(15)**
 - 석유: WTI 90.5\$(+4%), Dubai 91.3\$ (-12%). 정제마진 26.1\$(WoW +3.78\$). 유럽 디젤 선물 WoW +5%
 - 가스: 아시아 JKM +5%, 유럽 TTF +8%. 미국 Henry Hub -2%
 - 석유화학: 납사 -14% vs. 톨루엔 -8%, LDPE -7%, SM/아세톤/에폭시/ECH -6%, 에틸렌/ABS -5%. 납사/제품가 전반 하락

도표 1. T1 Energy의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T1 Energy, Trina Solar 모듈 인수 이후 매출 발생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6월 투자전략 + 5월 수출 Re

음식료/담배 Weekly Comment | 2026.6.8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 주간 리뷰/전망 및 이슈 코멘트

1) 주간 리뷰 및 전망

- 전주 음식료 업종지수는 코스피 대비 0.8%p 아웃퍼폼 시현, 반도체 대형주가 조정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내수주가 선방했던 한 주 었음
- 주중 후반 삼양식품이 장중 7% 상승하다가 보합으로 마감함. 삼양식품 김정수 회장이 주식 20만주(대출 포함)를 아들 전병우 및 딸 전하영씨에게 각각 17만 1,500주, 2만 8,500주 증여, 이번 증여 기인해 전병우 전무 지분율은 0.59%→2.87%, 전하영씨 지분율은 0.05%→0.43%로 상승함. 전병우 전무는 삼양라운즈스퀘어 지분을 이미 24.2%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상속 이슈에서 자유로운 상황임, 그러나 이번 사업사 지분 증여 기인해 3세 책임 경영 기대감이 삼양식품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최근 주가는 2분기 손익 레벨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27F PER 12배 내외까지 하락함. 라면 수출 성장은 4~5월 YoY 28%로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일부 광판비가 반영되더라도 유의미한 이익 레버리지 훼손 가능성은 낮아 보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
- 한편, 주중 초반에는 코스닥 낙폭 과대 의견이 반영되면서 CJ프레시웨이 주가가 상승함. 국민성장펀드 완판 이후 코스닥 훈풍 기대감이 관찰되고 있으나 실제 수급 유입 가능성은 지켜보아야 할 것. CJ프레시웨이 단기 실적 모멘텀은 온라인 채널 고객사 확대 위한 비용 반영으로 다소 제한적, 그러나 중장기 온라인 채널이 확대되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4배까지 하락한 만큼 중장기 측면에서 저가 매수 유효하다고 판단
- 전주 상승: CJ프레시웨이 +3.7%(코스닥 수급 유입 기대감), 오리온 +2.3%(저가 매수 유입) 등
- 전주 하락: 삼양식품 -7.1%(2분기 광판비 반영으로 손익 훼손 우려), 콜마비엔에이치 -5.8%(주가 모멘텀 부재), 풀무원 -5.0%(주가 모멘텀 부재), 빙그레 -4.7%(주가 모멘텀 부재), 대상 -4.0%(2분기 전년 베이스 부담), 롯데웰푸드 -3.8%(2분기 일회성비용 반영 전망), 동원산업 -3.5%(주가 모멘텀 부재) 등

2) 주간 이슈 코멘트

(1) 6월 투자전략 고찰

-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지금부터 관건은 평가 전가력 회복 여부가 될 것이다. 2분기부터 음식료 업체들은 원부자재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평가 반영 여부가 실적 및 투자심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자재 가격이 10%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주요 국내 가공 업체의 관련 부담액은 월 15억원(매출액 3조원 규모) 내외로 추정한다. 곡물 등 원재료 투입가도 3분기부터 YoY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환율도 부담이다. 원달러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Q26/3Q26 7% 내외 상승한다. 위안화는 동기간 13% 내외 절상된다.
- 평가 전가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실적 및 수급 측면에서 대형주가 유리하다. 업종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기 보다는 수출 실적이 부각되는 일부 업체로의 압축 투자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나증권은 하반기 올해 중국에서 10년 만에 두 자리 수 성장이 전망되는 오리에 대해 재차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곡물가 업사이클 진입에 따른 아미노산 평가 상승이 예상되는 CJ제일제당에 대해서도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 2분기 실적 우려로 최근 급락한 삼양식품도 Trading BUY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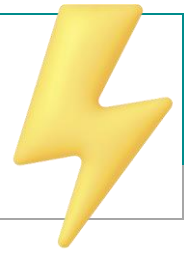
(2) 5월 수출 데이터(수리일 기준) Re

- ① 라면: 전년동월대비 21.1% 증가한 1억 5,359만 달러 기록, 미국 및 중국 각각 31.3%, 30.5% 증가
- ② 담배: 전년동월대비 -25.2% 감소한 4,243만 달러 시현
- ③ 김: 전년동월대비 -19.4% 감소한 8,015만 달러 기록
- ④ 김치: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1,324만 달러 시현
- ⑤ 소주: 레귤러 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한 693만 달러 시현, 과일 전년동월대비 -18.5% 감소한 659만 달러 기록
- ⑥ 라이신: 전년동월대비 60.6% 증가한 1,544만 달러 기록
- 4~5월 누계 수출 성장률: 라면 YoY 28.4%, 담배 YoY 2.2%, 김 YoY -12.5%, 김치 YoY 4.8%, 소주 YoY -8.4%, 라이신 YoY 42.2%
- 총평: 5월 수출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MoM 큰 폭 둔화 되었는데 전쟁 영향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중등 향 비중이 높은 담배 수출은 YoY 큰 폭 역성장을 시현. 인근 국가 수출 비중이 높은 라면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기는 했으나 시장 기대치에는 하회. 한편 라이신 수출은 연초 북미의 중국산 반덤핑 관세 부과 기인해 5월도 견조한 성장세 유지

3) 주간 관심종목

- 오리온(올해 유의미한 실적 개선 전망) > 삼양식품(최근 조정으로 저가 매수 유효)

배터리 투자자가 준비해야 하는 3가지



2차전지 Weekly < 이배속(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Overweight | 202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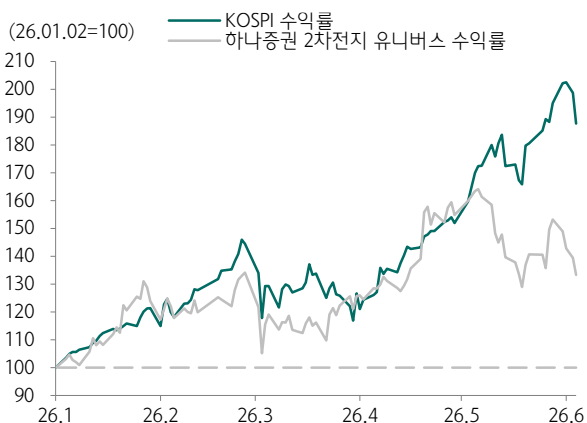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유럽 테슬라 판매 호조 + On-site ESS + Unwinding of Trump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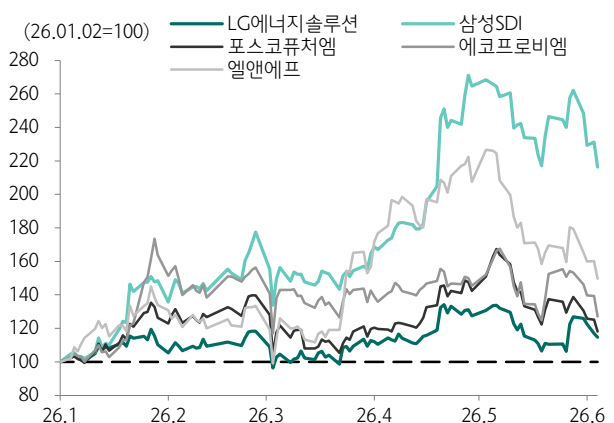
-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3사 합사 시장 점유율 하락세 지속되고 있으나(4월 3사 합산 점유율 28%로 사상 첫 30% 하회),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증가율은 YoY 3월 +33%, 4월 +25% 증가하며 유럽 시장 성장률에 근접했다(유럽 전체 출하 증가율 YoY 3월 +9%, 4월 +23%). 이는 유럽 시장 내 테슬라 판매 회복에 따른 것으로(3월 +89%, 4월 +97%, 5월 +64%), 테슬라 판매가 반등하며 유럽 테슬라형 원통형 전지 공급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가동률 및 출하량 역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ESS 시장에서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On-site 발전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정부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체결한 납세자 보호 서약(Taxpayer Protection Pledge,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구축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인허가 및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서약,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전기세 부담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 보호 서약이라고 명명) 이후 On-site 발전 관련 ESS 프로젝트 발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Fluence Energy의 하이퍼스케일러형 ESS 공급 계약, LG에너지솔루션의 Oracle 관련 ESS 수주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 3월 서약 이후 관련 발주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On-site 발전 데이터센터형 수주는 이제 막 1회초를 지났을 뿐이라고 판단한다.
- 한편 큰 틀에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점차 트럼프 정책 Unwinding을 선반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지지율 흐름을 고려할 때 하반기 들어서며 Unwinding 수혜 섹터인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 기반영된 EV 부진, ESS로 인한 이익 증가 불구 최근 한달 사이 시장 전반의 조정 과정에서 배터리 섹터도 동반 하락했다. AMPC 수혜 큰 셀메이커들은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불구하고 하락하며 가격 매력이 커졌다. 셀메이커 중심 매수 접근을 권고한다.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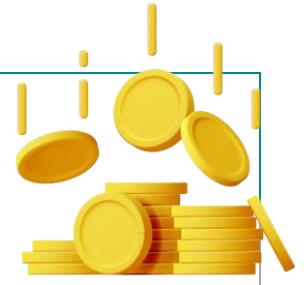
도표 2. 주요 업체 추가 추이



자료: 하나증권

단기 조정 국면, 국내 법안 논의 재개 예상

디지털자산 Weekly 온체인(On-Chain) | 202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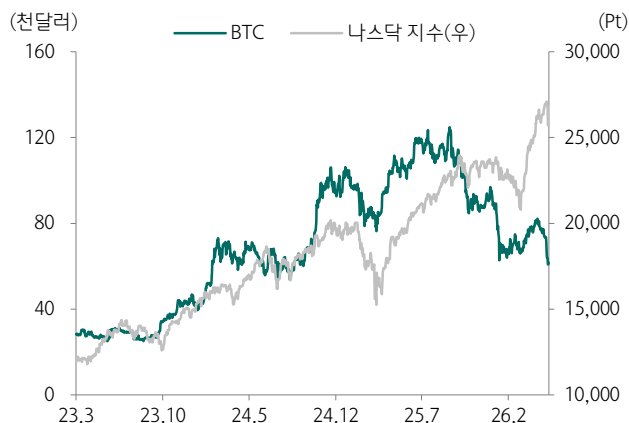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업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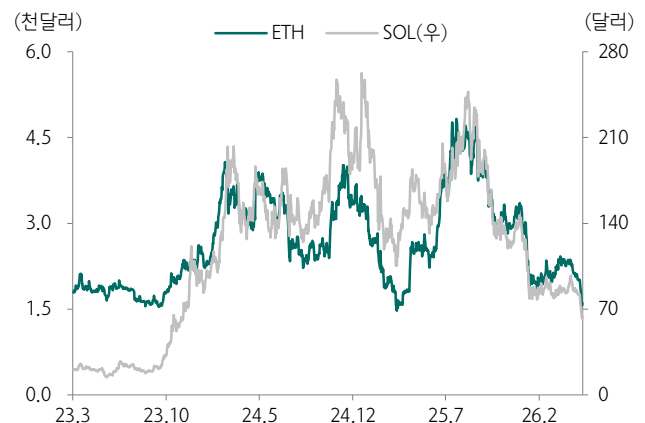
- 디지털자산 시장은 6/1~6/6 동안 크게 하락했다. 주요 코인의 수익률은 BTC -16.1%, ETH -19.9%, SOL -21.7%, TRX -7.4% 다.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모는 올해 최저점이었던 2월 수준이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대두와 함께 금리가 급등했고, 이 영향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동했다. 외부 변수 외에도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격 움직임은 지난 3번째 BTC 반감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전통적인 사이클로 보면 올해 10월이 구조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며, 8월까지의 저점 형성을 하는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 6월 1일 클래리티 액트가 상원 본회의 입법 일정에 추가되었다. 다음 단계는 상원 전체 투표다. 총 60표를 확보해야 하기에 공화당 53표를 제외한 민주당 7표 이상이 필요한 초당적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백악관,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은 신속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JPM을 포함한 은행들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상원 표결 이후에는 하원 법안과 문구 일치 여부 검토,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 이번 주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들은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에 동반했다. 특히 서클이 -29.0%로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 주요 요인은 스트라이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제기다. 스트라이프가 비자, 마스터카드, 코인베이스와 함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페이팔, 소파이, 피서브 등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으나 USDC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다만 스트라이프의 진출은 이전과 다른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스트라이프는 MPP, ACP를 포함하여 빅테크, 이커머스 기업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을 갖추고 지원한다. 스트라이프 주도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채택 과정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해당 연합에 코인베이스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코인베이스는 서클의 USDC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유통처다.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하반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6월 중순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정에서 지분을 투자한 전통 금융사와 거래소들의 역할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4일 한국투자증권, 코인원, 컴투스홀딩스는 코인원과 한국투자증권의 MTS를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서로의 앱을 연결해 주는 방식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와 같이 양 사의 MTS에 디지털자산과 전통 자산이 모두 거래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투자증권만의 전략이 아닌 국내 플랫폼이 나아갈 방향이다. 지분 관계가 있는 하나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업비트와 함께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년 BTC 가격, 나스닥 지수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최근 3년 ETH, SOL 가격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6.7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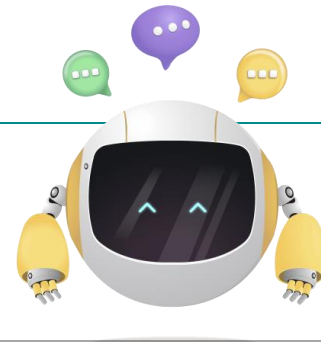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AI 반도체의 단기 변동성은 기다렸던 매수 기회

AI 산업의 수요 훼손은 없다

- 단기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증시 및 AI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변동성을 활용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현지시각 6월 5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4% 하락했다. 시장에서 언급된 AI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브로드컴의 실적과 엔비디아의 메모리 사용 축소 가능성 등이다. 브로드컴의 실적과 엔비디아의 메모리 구조 변경은 인공지능 수요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니다.
- 브로드컴이 FY 2Q26 실적 발표 후 12.6% 하락했다. FY 3Q26 AI 반도체 매출 가이드선과 FY 2026 AI 사업 전망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로드컴은 FY 3Q26과 FY 2026의 AI 반도체 매출 가이드선을 각각 160억 달러, 560억 달러로 제시했다. FY 4Q26 AI 반도체 매출을 추정하면 208억 달러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7.1%, 3%, 3.2% 하회한다. 수요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 브로드컴은 AI 덕분에 XPU와 네트워크 수요가 끝이 없다고 평가했다. AI 반도체 주문은 300억 달러를 넘었으며, 2028년까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 예상을 밑도는 가이드선의 이유는 공급 제약과 매출 인식 시점의 문제로 판단한다. 브로드컴은 고객 주문이 즉시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가 아니다. 실제 매출 인식을 위해선 칩뿐 아니라 메모리, 전력,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준비돼야 한다. 공급망 측면에선 HBM, 선단공정, 첨단 패키징 캐파도 함께 맞아야 한다. TSMC의 첨단 패키징 용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와는 다르다. 브로드컴의 XPU는 엔비디아 GPU처럼 범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강해도 매출화 속도는 고객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FY 2027 가이드선이 강력하지만 추가 상향되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AI 수요 악화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 엔비디아의 메모리 구조 변경에 대한 우려도 과하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NVL72 플랫폼에서 SOCAMM DRAM이 랙당 약 55TB에서 28TB로 줄어들 것이며, 192GB 대신 96GB의 SOCAMM을 사용할 것이라는 루머다. 엔비디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세미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이며, 창업자 Dylan Patel은 시장에 전파된 요약이 원래 노트의 핵심을 상당 부분 놓쳤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렸다. 지난 5월까지 세미 애널리스트는 SOCAMM을 엔비디아의 이익 확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SOCAMM이 소켓형 메모리라 별도 가격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96GB SOCAMM 전언과 기존 논리를 감안하면 가격이 오른 SOCAMM의 랙당 총비용을 낮추기 위한 TCO 최적화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은 베라 CPU 36개, 루빈 GPU 72개, ConnectX-9NIC, BlueField-4 DPU, 6세대 NVLink / Switch 등으로 구성된 랙 스케일 플랫폼이다. 루빈은 20.7TB GPU HBM4를 사용하며, GPU 한 개당 메모리 용량은 288GB다. 베라는 54TB의 LPDDR5X SOCAMM이 적용됐으며, 베라 CPU 한 개당 용량은 최대 약 1.5TB다. LPDDR5X는 SOCAMM 모듈 형태로 붙는다. IT 매체 Tom's Hardware는 GTC 2025에서 공개된 보드가 88코어 베라 CPU, 루빈 GPU 2개, 8개 SOCAMM LPDDR 메모리 모듈을 탑재했다고 보도했다. 공개 및 추정된 정보를 역산하면 베라 CPU의 모듈 당 메모리 용량은 192GB다.
- 시장의 루머가 사실이라면 줄어드는 것은 HBM이 아닌 SOCAMM이다. 같은 8개 SOCAMM 모듈 구성을 전제로 하면 CPU당 SOCAMM 수는 줄어들지 않으나, 사용되는 LPDDR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랙 당 수십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Tom's Hardware의 추정치를 인용하면 엔비디아가 1분기에 LPDDR5X를 GB 당 약 8달러에 조달했다고 한다. 기존 192GB 기준으로 54TB의 LPDDR 비용은 약 432,000 달러다. 용량을 반으로 줄이면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베라 루빈 NVL72 한 랙의 전체 BoM이 수백만 달러 단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계 변경 동기가 될 수 있다.

- 엔비디아의 설계 변경 가능성으로 단기적으로 랙당 DRAM 탑재량 감소 우려가 있을 순 있지만 메모리 및 AI 반도체 사이클을 부정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 루빈 랙 출하량이 빠르게 늘어난다면 총수요는 다시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양의 베라 루빈 랙(랙당 LPDDR 54TB)이 10,000개라면 총 LPDDR 용량은 540,000TB다. 계산 용이성을 위해 랙당 LPDDR이 28TB로 줄어든다면 랙 10,000개의 총 LPDDR 용량은 280,000TB지만, 랙 출하량이 약 19,300개로 늘어난다면 총 LPDDR은 540,000TB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수요가 강력하다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엔비디아가 SOCAMM 용량을 줄이는 이유는 수요 약화가 아닌 고객의 총 소유 비용(TCO)을 줄여 플랫폼을 다양한 고객에게 확장하기 위함일 수 있다. 루머에 따르면 세미 애널리시스는 랙당 비용 감소로 고객의 총 소유 비용이 \$4.16/hr/GPU에서 \$3.9/hr/GPU로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고객이 더 저렴하게 엔비디아 베라 루빈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엔비디아의 전략과 부합하는 변화라고 판단한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부터 시장 플랫폼에 따른 매출 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데이터센터와 엣지 컴퓨팅으로 크게 분류했고, 데이터센터는 1) 하이퍼스케일러, 2) AI 클라우드, 산업 & 엔터프라이즈 등으로 세분화했다. 분기 매출 구성을 새롭게 제시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용 플랫폼이 하이퍼스케일러만큼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 SOCAMM은 소켓형, 탈착식 모듈 형태다. 기존 LPDDR처럼 보드에 납땜하는 방식이 아닌 CAMM 계열의 압착 접점 방식으로 CPU 보드 위에 장착되는 교환 가능한 메모리 모듈이다. 마이크론도 SOCAMM2를 LPDDR5X용 데이터센터급 모듈러 폼팩터라고 설명했고, 엔비디아도 GB300용 SOCAMM을 모듈형 메모리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이퍼스케일러처럼 자금의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가장 좋은 사양의 데이터센터 구조를 가져가겠지만,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들은 기업의 목적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HBM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AI의 핵심인 토큰이 생성되는 부분이 GPU기 때문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CPU 메모리는 호스트, 오케스트레이션, 데이터 준비, 서비스성 역할에 가깝다. LPDDR은 KV-캐시 관리, 데이터 스테이징, 오케스트레이션 등 랙 스케일 시스템 효율에 중요하지만, 실제 토큰 생성의 핵심 연산과 초고대역폭 메모리 병목은 여전히 GPU/HBM 쪽에 있다. SOCAMM 용량 축소를 HBM4의 수요 훼손이나 토큰 처리 능력의 동비용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걱정도 과하다. 핵심인 HBM과 AI형 고급 DRAM은 사실상 장기계약 상태에 가깝다. 마이크론은 2026년 HBM 공급이 장기계약으로 사실상 소진됐고, 2028년 물량도 일부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OCAMM은 초기 생태계라 명확히 공시된 시장은 아니지만 공급이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 SOCAMM의 랙당 비트가 줄어들더라도 LPDDR/SOCAMM의 타이트한 공급과 가격 상승이 매출 감소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엔비디아가 TCO를 낮춰 베라 루빈 출하량을 늘리면 수익성이 좋은 HBM4의 총 수요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 인공지능 투자 수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알파벳은 AI 인프라와 컴퓨트 확장을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강한 투자자 수요로 조달 규모가 848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메타도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규모 주식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스페이스X는 750억 달러 규모의 IPO를 추진 중이며, S-1에서 조달 자금 사용처 중 하나로 AI 컴퓨트 인프라 확장을 명시했다. 이후 상장이 거론되고 있는 엔트로픽, 오픈AI도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컴퓨팅 투자가 불가피하다.
- 이번 조정은 AI 수요 훼손 영향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및 AI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증시 변동성 확대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시장 안정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가파르게 상승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감안하면 거칠지만 건전한 조정 성격이 강하다. 펀더멘털 훼손은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하며, 변동성이 발생한 구간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 하반기 전망 추천 종목: 1) 공급망 병목: MU, NVDA, STX, COHR, GLXY, 2) 시장 지형 변화 및 기업의 진화: AMD, AMZN, 3) 피지컬 AI: NOV, RRX, CGNX, TKR 등



Tech&Stock Weekly

2026.06.05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중원 1223sjw@hanafn.com

AI 가동의 필수 요건으로서 보안 중요도 급부상

클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AI 가동의 필수 요건으로서 보안 중요도 급부상

- 시장에서 주목하는 CRWD 핵심 실적지표는 순신규 ARR. FY27년 1분기 순신규 ARR의 예상치 상회폭은 기대보다 크지 않았으나 FY27년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 폭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것에 주목
- 1분기 순신규 ARR 2.6억 달러로 YoY 32% 성장하며 가이던스를 2.5%p 상회. FY27년 연간 순신규 ARR 전망치는 YoY 성장 기준 기존대비 5.2%p 상향 조정하여 27~29%로 제시. FY26년(+25%) 대비 가파른 가속화 전망에 대한 자신감 피력
- 핵심 요인은 1) 단일 제품이 아닌 복수 제품 채택 비중 증가, 2) 기존 고객 유지율이 높고 고객의 지출 확대 구조 유지, 그리고 가장 주목하는 점은 '미토스 모멘트'. 앤스로픽의 클라우드 미토스 모델 공개를 계기로 AI 가동에 사이버보안 필요성 급부상. 고객사의 문의가 폭발적 증가하고 2분기 계약 파이프라인 역대 최고 수준 기록.
- AI가 사이버보안 사업자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시장 우려와 달리, '미토스 모멘트' 이후 기업들의 인식은 AI 가동을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보안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해야한다는 점이 더욱 강화된 계기가 됨. 2월 후반부터 이러한 미토스 효과가 가속화되며 고객사의 수요 강세 뚜렷
- 1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코멘트는 기업의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중요 요인이 보안 강화이며 이러한 우호적 환경 속에서 통합 플랫폼 사업자로서 CRWD가 확실한 수혜자라는 점을 확인
- 실적 발표 전 1개월 동안 70% 넘는 추가 상승을 통해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되어, 실적 발표 후 추가 소폭 하락(-4%).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등 추가 변동성 있겠으나 1) 강력한 파이프라인에 따른 높은 실적 가시성, 2) 기업의 AI 도입 본격화 속에서 AI 보안 제품에 대한 수요 상승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CRWD, PANW 같은 대표 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향후 Beat & Raise 지속을 통해 업사이드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

팔로알토(PANW.US): 사이버보안 시장 높은 성장성과 점유율 상승에 주목

- 모든 실적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FY26년 연간 가이던스 모든 지표 상향 조정
- 1)AI 보안 수요 증대 속에서 대표 통합 플랫폼 사업자로서 수혜 확인, 2) AI 트래픽 폭증은 하드웨어 방화벽의 중요도 상승, 3) 사이버아크, 크로노스피어 등 인수 기업과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 확인
- AI 도입 가속화는 보안 수요를 견인하고 대표 통합 플랫폼 사업자인 PANW 수혜 뚜렷.
-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아이덴티티 보안 중요도가 가장 크고 모니터링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PANW가 선제적으로 사이버아크(아이덴티티), 크로노스피어(모니터링) 등을 인수하여 통합 시너지가 향후 본격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실적 발표 전까지 1개월 동안 추가가 70% 가까이 상승하며 기대감이 선반영. 실적 발표 후 추가는 7% 하락한 상황
- 추가 급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차익실현 영향 가능성 있으나 AI 보안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시장 내의 가파른 점유율 상승을 고려하면 투자 매력도 높은 종목



경쟁적으로 AI 투자 확대 중인 상위 기업들

Hana China Weekly | 2026.6.5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BYD(002594.SZ):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칩 투자로 AI 역량 강화 본격화

- 6/3 BYD 부사장이 인터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공식 확인. 향후 가정용 시나리오 진출 시 기존 자동차 딜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매할 계획이며, 자체 개발 로봇과 외부 협력사 제품 모두를 수용하는 개방형 로봇 플랫폼 구축도 병행할 방침. BYD가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 경영진은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복잡하지만 로봇에 이식하는 것은 BYD에게 매우 쉽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
- 5/28 스마트화 전략 발표회에서 중국 첫 4nm 자율주행 칩 'Xuanji A3'를 공개. 현재 양산 단계에 진입했으며, L3-L4 자율주행 지원 및 3개 칩 합산 2,100TOPS 이상 연산 성능을 제공. 경영진은 전동화의 1라운드는 배터리, 2라운드는 칩이 핵심이라고 언급. BYD는 배터리와 전력 반도체, 전기 모터 등 주요 부품 상당수를 자체 생산하는 수직계열화 기업으로 향후 BYD가 자체 칩을 기반으로 어떤 수준의 주행 보조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바.

텐센트(0700.HK): 위챗 AI 에이전트 기능 출시 루머에 상승

- 6/2 FT는 텐센트가 위챗 14억명 사용자 대상 AI 에이전트 기능 출시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규제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 프로토타입은 내부 테스트에서 사용자가 위챗 메인 화면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 AI 에이전트 채팅창에 접근하며, 미니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작업(상품 검색·주문·예약 등)을 에이전트가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었음. 텐센트는 FT 보도에 코멘트를 거부했으며, 정식 출시일은 컴플라이언스 절차 소요 시간의 불확실성으로 미확정되었다고 발표. 6/3 주가는 +11.7% 급등 마감해 2022년 11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나 사측의 공식 부인에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딥시크(비상장): 외부 자금 조달 마무리 단계 진입

- 5/28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국가대기금)을 리드 투자자로 하는 첫 외부 자금 조달 라운드(최대 700억위안)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 투자 전 밸류에이션은 450억달러(약 3,057억위안)로 예상되며, 성사 시 중국 AI LLM 사상 최대 단일 라운드 조달로 기록될 전망. 텐센트와 CATL은 딥시크에 각각 100억위안, 50억위안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두 기업은 이번 자금 조달 라운드의 최대 외부 투자자가 될 것으로 예상. 이 외에도 넷이즈, 징둥도 딥시크와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단 3주 만에 밸류에이션이 4월 초 100억 달러, 4/22 200억달러, 5/6 450억달러로 급격히 상향된 구조로, 딥시크 V4 출시·API 가격 영구 인하·국산 칩 호환 완료 등 일련의 모멘텀이 투자자 신뢰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1	317,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현대차 (005380.KS)	6/1	723,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와 인센티브 부담에도 HEV 비중 사상 최대 수준까지 확대되며 제품 믹스 개선 지속 단순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AI 프리미엄 구간 진입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6/1	458,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S 출하 증가와 AMPC 증가 효과 맞물리며 3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 예상 ESS 시장 확대와 빠른 CAPA 증설에 따른 2028년 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 유효
HD현대중공업 (329180.KS)	6/1	696,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건조 Mix 중 저마진 상선 비중 높아 향후 개선 여력이 경쟁사 대비 많아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 수주를 통해 발전용 엔진 시장으로 성장기 성장동력 확대 전망
LG이노텍 (011070.KS)	6/1	1,458,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KT&G (033780.KS)	6/1	184,7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담배의 두 자릿수 성장과 국내 킬런 점유율 상승으로 호실적 기대 자사주 소각·신규 매입 및 배당 확대 기조가 이어지며 모범적 주주환원 부각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6/1	119,8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리지·WMI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세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국내증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6/1	349,5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덕산하이메탈 (077360.KQ)	6/1	12,99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2,115억원(YoY +67.0%), 영업이익 263억원(YoY +69.0%) 전망 데이터센터 내 일반 디램 및 낸드 채용 확대에 솔더볼 수요 증가 중
에치에프알 (230240.KQ)	6/1	31,85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미국 AWS-3 재경매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 예정 AT&T의 CAPEX 확대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에 따른 북미 통신장비 투자 수혜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05%	-6.77%p	+86.08%	+10.6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현대모비스 (012330.KS)	6/1	768,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 부문, 유럽-미주 수요 호조와 평가 인상, 우호적 환율 효과로 26%대 고마진 회복 보스턴다이내믹스향 로봇 핵심부품 내재화로 로봇 현금흐름 가치 부각될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5/26	1,340,000	2,127,000	5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삼성증권 (016360.KS)	5/26	129,900	119,800	-7.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로커리지·WM·B 수수료가 모두 개선되며 리테일 강제 국면의 실적 레버리지 부각 국내증시 거래대금 확대와 IBKR 외국인 통합계좌 출시로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49,500	30.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2,333,000	12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4/13	91,900	90,100	-1.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317,000	8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지빌리티 (034020.KS)	4/1	91,800	105,600	1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2026년 에너지빌리티 부문 가이드런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423,500	2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1,458,000	396.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2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9.25%	-14.60%p	+62.66%	-12.8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48,725	6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3,260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4,295	3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400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27.53	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전력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6.85	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8.75	2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8.46	2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7	6.8	6.9	6.10	6.11	6.12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1분기 GDP F (E 1.4, 이전치 2.1%) 유로존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 (E -14.0, 이전치 -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분기 GDP A (E 3.6%, 이전치 3.6%) 중국 5월 수출 (E 15%, 이전치 14.1%) 중국 5월 수입 (E 26.5%, 이전치 25.3%) 미국 4월 무역수지 (E -56.5b, 이전치 -\$60.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PPI (E 5.6%, 이전치 4.9%) 중국 5월 PPI (E 3.8%, 이전치 2.8%) 중국 5월 CPI (E 1.3%, 이전치 1.2%) 미국 5월 CPI (E 4.2%, 이전치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실업률 (E 2.8%, 이전치 2.8%) 유로존 5월 기준금리(주요재용자금리) 결정 (E 2.4%, 이전치 2.15%) 미국 6월 1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219k, 이전치 225k) 미국 5월 전년대비 PPI (E 6.4%, 이전치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4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2.3%)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P (E --, 이전치 44.8) 	
6.14	6.15	6.16	6.17	6.18	6.19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NAHB주택시장지수 (E 37, 이전치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수출 물가 지수 (E --, 이전치 7.1%) 한국 5월 수입 물가 지수 (E --, 이전치 -2.3%) 일본 6월 기준금리 결정 (E --, 이전치 0.75%) 중국 5월 광공업생산 (E 4.2%, 이전치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수출 (E --, 이전치 14.8%) 일본 5월 수입 (E --, 이전치 9.7%) 유로존 6월 CPI F (E --,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기준금리 결정 (E --, 이전치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PPI (E --, 이전치 6.9%) 일본 5월 CPI (E --, 이전치 1.4%)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